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떤 회고록

나는 어린 나이에 출가(出家)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중학교 진학은 꿈의 눈물방울 같은 바람이었다. 1960년대 초 당시엔 백양사는 대처승들의 요람이었다. 49재를 밤새워 지내는데 염불하는 스님들이 휴식시간에는 뒷방에서 신도들 몰래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실망과 분노는 마침내 백양사를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여, 통도사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백양사에서 받은 사미계는 힘을 잃고 다시 고된 행자 수업을 하게 된다. 밥 짓는 공양주, 국 끓이는 갱두, 반찬 장만하는 채공에 이르기까지 몇 년을 두고 후원의 길고긴 행자생활이 이어진다.

대학 나오고 허우대 멀쩡한 행자들은 행자 수업 기간과는 상관없이 어른 스님들로부터 선택되어 스님이 되기 때문이다.

나의 얼굴은 검다. 블랙보이가 행자 시절 별명이다. 늦게 철이 들어 해외에 머문 15년 동안에도 미얀마나 태국사람으로 받아들일 만큼 피부가 검고 수상쩍은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다.

인도·중국 등서 정진하며 깨달음
이제 행복 누리며 자유로이 산다

통도사 뒷방에는 노승 한 분이 뒤뜰 잡초마냥 별 볼일 없이 살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몇 번이나 그 광경을 지켜보며 울분을 삭이지 못하는 실망감으로 정신적 방황을 겪게 된다. 통도사의 승가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뜻한바 있어 해인사 선원으로 오게 된다.

해인사에는 고암스님, 성철스님, 지월스님, 자운스님, 영암스님, 일타스님, 혜암스님, 법전스님이 선원의 지도자이자 정진 대중이었다. 고암, 성철, 혜암, 법전스님은 종정을 역임하시게 된다. 일타스님과 지월스님은 한국불교계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수행의 교과서이자 교훈적 전설을 남기신 스승님이다. 동사섭(同事攝)을 몸으로 실천하신 올곧은 참스승이 일타스님이요, 청빈(淸貧)의 실천가이자 하심을 생활화 하신분이 보살의 상징 지월선사이기 때문이다.

해인사 선원에 머물 때 3개월간 후원의 공양주를 자청해 하루 세끼 밥 짓는 일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이른 새벽인데 지월스님은 수채 구멍에서 밥알을 찾아내 깨끗한 물로 헹구고 있었다. 그 헹궈낸 밥알을 냄비에 넣어 끓여 드시는 스님이 당시 해인사 주지 지월선사였다.

당시의 해인사 선원에서는 법거량(法擧量)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고암스님, 성철스님, 향곡스님, 서옹스님, 월산스님 등이 함께 하셨고 혜암, 법전, 지월, 일타스님이 소임자로 정진대중과 함께 묻고 답하는 진리의 광장이 열기로 가득하였다. 가끔씩 청담스님도 참석하시는 자리였다.

요즘은 법거량이 사라진 빈터의 적막감이 예전의 큰 스님들을 더욱 그립게 하고 있다. 그 뒤 대한민국의 남자로 군복무를 마치고 불교신문사의 심부름꾼이 된다.

하루는 조계사 뜰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 그때가 윤달이라서 생전예수재의 회향일 이었다. 전생(前生)의 빚을 갚고 내생(來生)의 길을 밝히는 행사로 일인당 3천 원을 받고 꽃가마에 신도를 태우고 스님 둘이서 앞뒤로 가마를 매고 줄달음질쳐 대웅전을 한 바퀴 돌아오는 민망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건 대낮에 조계종 총무원의 법당 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동대문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버스요금이 8백 원인데 법당 한 바퀴 꽃가마 타는 요금이 3천 원이라니. 더욱 못마땅한 것은 부모 형제를 마다하고 출가(出家)한 젊은 스님들이 자존심도 팽개치고 3천원 받고 가마 매고 뜀박질 하는 꼴 이라니.

나는 늦게야 철이 든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인도로 날아간다. 미치고 환장할 만큼 한국이 그리워도 피눈물 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인도에서 3년을 간절함 하나로 머물게 된다. 어느 날 천지개벽 하듯 일체의 의혹이 일시에 풀리는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그 뒤, 네팔과 티베트를 거쳐 중국에서 7년 동안 머물며 중국어도 익히고 중국 고어를 배우며 불교의 경전과 선어록을 살피게 된다. 해외생활 15년도 마무리한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속이지 않고 속지 않으며 머뭇거리나 망설이지 않는다. 요즘은 할 일없는 늙은이로 행복과 자유 누리며 법거량을 즐기며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고 있다.

눈으로 보았다면 다시 귀로 듣자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남송 때 임제종 양기파 스님 가운데 동선사악(東禪思嶽) 선사가 있었다. 생몰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다만 그가 바로 간화선의 완성자로 알려진 대혜종고(大慧宗 ṗ1089~1163)의 제자였다고 알려졌다. 복주(福州)의 동선사(東禪寺)에 오래 머물었으므로 동선(東禪)이라 불리었으며 몽암(夢菴)이라는 호가 따로 있었다. 동선사는 북송 때 와서 대장경을 조조한 절로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송 휘종(徽宗)이 하사한 이름으로 불린 숭녕만수대장이 바로 동선사판이다.

뇌암정수(雷庵正受:1146~1208)가 지은 〈가태보등록(嘉泰普燈錄)〉의 〈동선몽암장(東禪夢庵章)〉에 참선납자를 격려하는 좋은 법문이 수록되어 있다.

"대지는 드넓게 펼쳐져 이렇게 광활하고, 험한 산은 아득하여 가는 곳마다 그윽하고 깊으니 여기가 납승들의 법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니 부처님과 조사의 원수를 갚을 곳이다. 힘을 다하여 제대로 말할지라도 몽둥이 한 방에 한 줄기 흔적이 남고 힘을 다했으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더라도 따귀 한 대에 피멍이 남는다. 만약 눈으로 보았다면 다시 그것을 귀로 들어야 하며 만약 마음으로 알았다면 다시 지혜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증삼매(智證三昧)라 하고 또한 문수 · 보현과 같은 대인(大人)의 경계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뜻을 자세히 다 안다면 삼천대천의 무수한 세계가 하나의 가는 털에 모두 거두어지고, 백억 개의 머리털이 한 개 털공이 되어 구르며 온몸 곳곳에 눈이 생기게 되고 풍경이 없는 곳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大地茫茫 恁 廣濶 窮山莫漕 隨分幽深 爲衲僧法戰之場 報佛祖冤讐之處 盡力道得 一棒一條痕 盡力道不得 一掌一手血 如以眼見 則復耳聞 如以心知 則復智證 是故 謂之智證三昧 亦是文殊普賢大人境界 若也於此共相委悉 大千沙界一毫收 百億毛頭 輥繡毬 直是通身還有眼 不風流處 也風流)

흔히 선불장(選佛場)이라고 하는 수행도량을 몽암은 '법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法戰之場)'라 하고 수행 정진하는 곳을 '불조의 원수를 갚는 곳'이라는 색다른 표현을 하였다. 은혜를 갚는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수행 정진하는 것을 부처가 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라 하여 선불장이라 불렀다. 과거 시험장에 비유해 한 말이다.

규봉종밀(圭蜂宗密:780~841)은 출가 전에 과거에 응시하러 장안으로 길을 떠났다. 도중에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다. 스님이 말을 걸었다. "젊은 선비는 어디를 가시오?" "예 스님, 장안으로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그 말은 들은 스님이 잠시 말이 없다 중얼거리며 말했다.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부처에 합격하는 것만 못할 것이야." 이 말은 들은 규봉이 곧장 스님을 따라 절로가 출가를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또 『전등록』 〈단하천연전(丹霞天然傳)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벼슬에 뽑히는 게 부처에 뽑히는 것만 하겠는가?(選官何如選佛)"라는 구절이 있다. 방(龐)거사의 게송에도 선불장 이야기가 나온다.

"시방으로부터 와 함께 모여 저마다 무위(無爲)의 도를 배우니 여기가 부처 뽑는 장소라 마음이 비워지면 급제해 돌아간다네."(十方同聚會 箇箇學無爲 此是選佛場 心空及第歸)라고 하였다. 또 『선요(禪要)』의 저자 고봉원묘(高峰原妙:1238~1295)가 개당보설(開堂普說)의 법문에는 "와! 원래 온 세상이 바로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요, 세상 전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로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무슨 방거사의 선불장 이야기를 하겠는가? 설사 삼승과 십지의 모든 보살일지라도 간이 떨어지고 혼이 놀라며, 달마대사나 부처님도 몸을 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가태보등록』은 『경덕전등록』,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 『건중정국속등록(建中靖國續燈錄)』 등을 이어 나온 선종사서(禪宗史書)로 먼저 나온 사서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충 증보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출가한 스님들에 관한 것만 수록하지 않고 왕공(王公), 거사, 비구니 등에 관한 것도 수록하여 놓았다. 내용을 구분하여 시중기어(示衆機語), 성군현시(聖君賢臣), 응화성현(應化聖賢), 광어(廣語), 염고(拈古), 송고(頌古), 게찬(偈贊), 잡저(雜著)의 여덟 부분으로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남을 위하는 일이 자신 위한 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⑭ 정녕 깨달은 장부란

覺悟幀丈夫品第二十一
悲心極　富 利他已生樂/ 貧窮悲心人 不能貪此樂/ ᴇ 愚愛自在 悲心則背去/ 悲心已背去 眾苦皆來集
愛自在者。處生死中欲分苦與他共ø流生死。悲心者。於世間眾生分寂滅樂共之而去。有愛心者樂於三有。知愛過者則樂涅槃。作利益他者則樂悲心。愛自在者常樂世間。受身爲己樂故。悲自在者常樂受身。爲樂他故。愛自在者常樂己樂以爲自縛。悲心者恒爲欲與他樂而爲自縛。愛自在者常爲己樂無有疲厭。悲心者爲與他樂而無疲厭。愚愛小者不愛自己亦不愛他。菩薩亦愛自己。愚癡眾生常爲我者。實是爲他˚

번역 | 각오녕장부품 제21
자비심이 지극히 풍부하여 남을 이롭게 하면 이미 즐거움이 생기고
자비심에 가난한 이는 탐하여도 여기에 즐거울 수 없다네.
어리고, 어리석고, 애착함으로 멋대로 하면 자비심은 떠나가나니
자비심이 이미 떠나갔으니 뭇 괴로움이 다 모여든다네.
애착이 자재한 이는 생사(生死)에 머물며 타인과 더불어 괴로움을 나누고자 하나 모두 생사에 윤회합니다. 자비심 있는 이는 세상의 중생에게 적멸락(寂滅樂)을 나누며 함께 떠나갑니다. 애착심 있는 이는 삼계(心界)를 즐거워하지만 애착을 벗어난 이는 열반의 즐거움을 압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이는 자비심으로 즐겁고 애착이 자재한 이는 늘 세간을 좋아하는데, 몸 받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이 자재한 이도 몸 받는 것이 늘 즐겁지만 타인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애착이 자재한 이는 늘 자신의 즐거움을 좋아하기에 스스로 얽히고, 자비심 있는 이는 늘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얽맵니다. 애착이 자재한 이는 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피로하며, 자비심 있는 이는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려고하기에 피로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애착하는 소인배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보살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늘 자신만을 위하지만 실제로 남을 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해설 | 제21품의 제목인 '각오녕장부(覺悟幀丈夫)'란 '깨달아야 정녕 장부'라는 뜻이다. 본 논서가 제바 보살의 〈대장부론〉인데, 대장부란 바로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깨달음'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은 조사어록에 넘쳐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는 견성성불(見性成佛) 사상이다. 그러데 제바 보살이 말하는 '각오(覺悟)', 즉 깨달음은 좀 다르다. 깨달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접근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누군가가 인가해 주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남들도 보아서 알 수 있는 깨달음을 강조한다. 바로,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생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괴로움에 얽히는 이들이라고 말하며, 보살은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번뇌에 얽히는 이라고 말한다. 소인배인 중생은 그 번뇌에 얽힘을 통해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고 남도 사랑할 줄 모르지만, 보살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바로 자신을 위하는 삶임을 실제로 믿는 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싶다. 진정한 자신의 즐거움이 타인의 즐거움 속에 있었음을 알 리 없었으니 말이다.

